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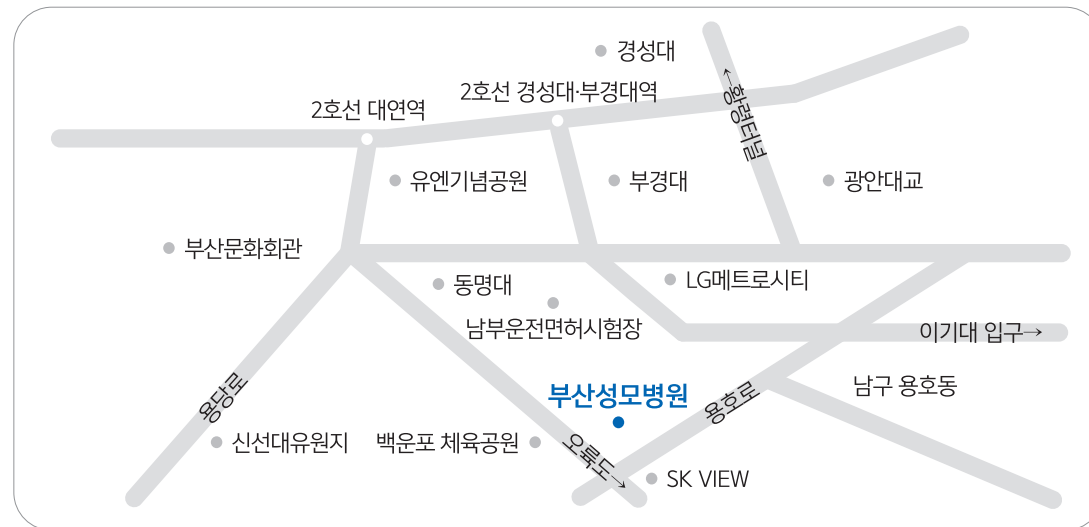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진료시간표

	월	화	수	목	금	토
오전	완화의학과	혈액종양내과	완화의학과	혈액종양내과	완화의학과	-
오후	혈액종양내과	완화의학과	혈액종양내과	완화의학과	혈액종양내과	-

※ 가정형 호스피스 진료는 완화의학과로 접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 ◆ 가정형 호스피스 상담 ☎ 051)933-7969
- ◆ 완화의료센터 입원 상담 ☎ 051)933-7133
- ◆ 완화의료센터 입원 진료예약 ☎ 051)933-77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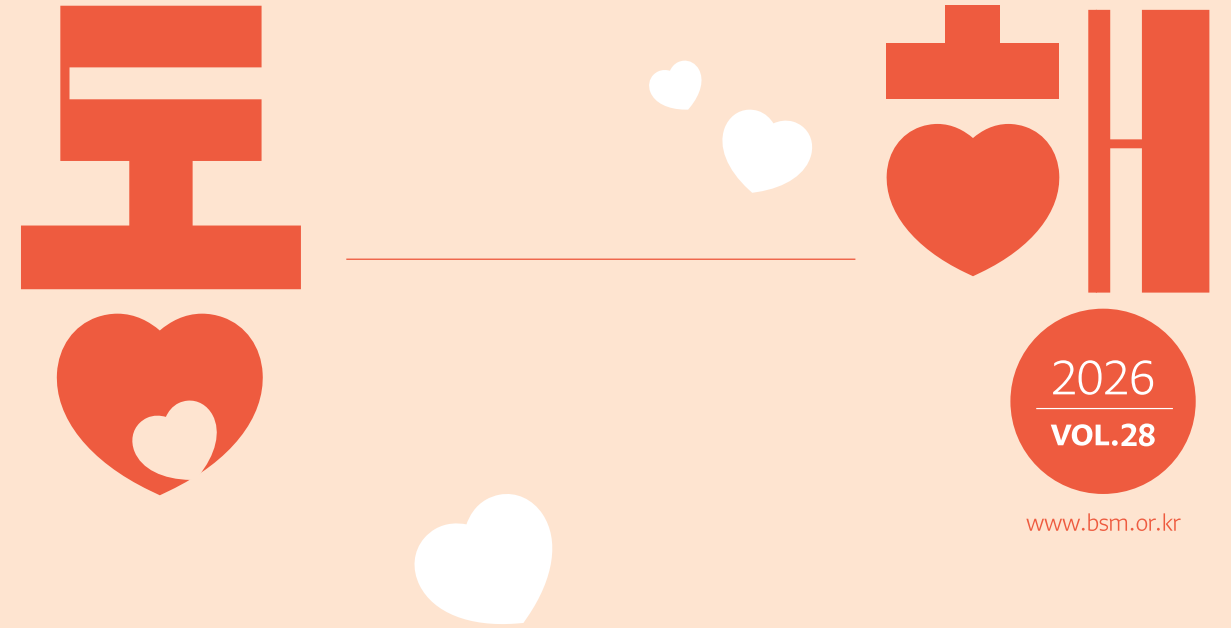
찾아오시는 길



- 서면방면 20, 24번
- 부산역방면 22, 27번
- 동래방면 131번
- 해운대방면 39번
- 마을버스 남구2, 2-1, 8번
- 부산성모병원 정류소 하차(셔틀버스 운행)



부산가톨릭의료원
BUSAN ST. MARY'S HOSPITAL
부산성모병원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로232번길 25-14
T. 051)933-7133 F. 051)932-8636



2026
VOL.28

www.bsm.or.kr

복음적 사랑을 실천하는 전인적 치료



부산가톨릭의료원
BUSAN ST. MARY'S HOSPITAL
부산성모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별을 따라가는 길

이해인

어디선가 당신이
내 이름을 부르면
나는 그 순간
별이 되었습니다.

하늘의 별이
마음에 박힌 후
그리움을 멈출 수 없어
멀리 떠난 길

사막을 걸으며
지치기도 했고
때로는 절망에 빠지기도 했으나
절망은 다시 희망으로 솟아올라
사랑이 되었습니다.

평생토록
당신만 사랑한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당신 곁에
오래오래 머물다 보니
나도 이젠 조그만 별이 되었고
어느 날 당신과 함께
승천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CONTENTS



02 권두 이야기

별을 따르는 길 이해인



04 우리들의 이야기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류태정
여정을 함께하는 사람들 이지원
내 생각과 내 말과 행동이 이영숙
언제나 당신 마음에 들게 하소서!



10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의 이모저모



14 후원회 가입안내



15 이용안내



16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진료시간표

호스피스완화의료란 무엇인가?

환자를 힘들게 하는 신체적 증상 및 통증을 적극적으로 조절하고 환자와 가족의 심리사회적, 영적 어려움을 돕습니다. 이를 위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성직자, 자원봉사자 등으로 이루어진 완화의료전문가가 팀을 이루어 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경감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의료 서비스입니다.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류태정
완화의료센터 간호사

임종의 순간은 두렵고 슬픈 시간으로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환자분들과 보호자분들을 만나면서, 그 시간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은 서로의 마음을 전하고 함께 시간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짧게 느껴질 수 있는 시간이지만,
 그 안에는 미처 전하지 못했던 말과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임종의 시간이 단순한 끝이 아니라,
 서로를 기억하고 마음을 나누는 시간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신규 간호사 시절의 저는 임종을 앞둔 환자분을 돌보는 일이 낯설고,
 어떻게 다가야 할지 몰라 두려운 마음이 앞서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곳이 낯설게 느껴졌고, 임종을 기다리는 공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경험한 호스피스 병동은 환자분의 통증과 불안을 줄여드리고,
 남은 시간을 조금 더 편안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곁에서 돕는 공간이었습니다.
 환자분뿐만 아니라 보호자분들도 그 시간을 혼자 견디지 않도록
 함께하는 곳이라는 것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오래 기억에 남는 환자분이 계십니다.



통증이 있는 상황에서도 처치를 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처치가 늦어졌을 때에도 불편함을 표현하시기보다 오히려 저를 배려해주셨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힘든 순간에도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그 마음이 오래 남아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듣고, 임종의 시간을 함께하며
 101병동 류태정 그 시간을 어떤 마음으로 보내시는지도
 그만큼 소중할 수 있다는 것을 조금씩 느끼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환자분들과 보호자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시간을 보내고 계신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잘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스스로를 너무 힘들게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곁에 함께 있어주고, 같은 시간을 보내고, 말없이 손을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서로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많은 것을 나누고 계신 것입니다.
 부디 그 시간이 조금 덜 아프고, 조금 덜 외로운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정을 함께하는 사람들



이지원
완화의료센터 사회복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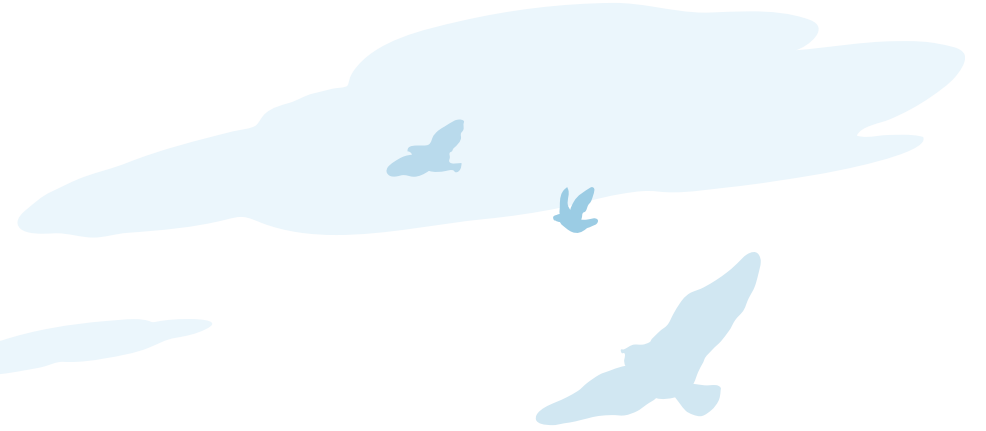
죽음과 이별은 오랫동안 나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라고 생각해왔다. 그래서 깊이 고민해본 적도 없었다. 그런 내가 지금 호스피스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 문득 낯설게 느껴지기도 한다.

나는 영화「목숨」을 통해 처음 호스피스라는 분야를 알게 되었고, 이후 대학교 시절 대외활동을 하며 호스피스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조금 더 가까이에서 이해하게 되었다.

그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호스피스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현장에서 만난 삶의 마지막 순간들은 꼭 슬픔만 있는 것이 아니라 편안함과 따뜻함이 함께 머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다. 그리고 그 곁에서 사회복지사로서 작지만 힘이 되어드릴 수 있다는 사실은 나에게 큰 의미이자 깊은 보람으로 다가왔다.

요법 프로그램 참여를 권유하거나 이벤트를 진행할 때면, 보호자분들이 “호스피스 병원에 프로그램이 많네요?”라고 놀라시는 경우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호스피스를 조용하고 어두운 공간으로 많이 생각하지만, 호스피스도 역시 사람이 살아가는 곳이다. 음악이 흐르기도 하고, 지나온 시간을 이야기하며 웃음이 번지기도 한다. 당연히 눈물도 흐르지만 그마저도 사람이 살아가는 공간이기에 자연스러운 희로애락의 일부라 생각한다.

여전히 환자들의 임종을 마주할 때면 “계시는 동안 편안하게 지내셨을까?” “내가 정말 환자와 보호자에게 필요한 돌봄을 충분히 해드렸을까?” 하는 후회와 아쉬움은 항상 따라오는 것 같다.

그럼에도 이제 더 이상 아프지 않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마음을 다잡는다.

앞으로도 호스피스 사회복지사로서 환자와 보호자 곁에 머물며, 그들의 시간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함께하고 싶다.



내 생각과 내 말과 행동이 언제나 당신 마음에 들게 하소서!

(시편 19,14)



이영숙(로사)
호스피스 봉사자



오늘도 나는 부산 성모병원 완화의료센터 호스피스 병동으로 간다.
나는 이곳에서 자원봉사자로 아주 작은 나눔을 하고 있다.
사실은 자원봉사자라는 명찰 뒤에 나는 너무도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고 해야 맞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참으로 많다.
그중에 제일 많은 것은 아로마 마사지이다.
환우님들이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 잠을 주무시기 어려워하신다.
그럴 때 무릎, 발, 다리 아로마 마사지를 해 드리면 참 좋아하신다.
다음에 만나면 마사지 덕분에 참 편하게 잘 주무셨다고 보호자님과 환우님이 고
마워하시면 우린 보람을 느낀다. 그리고 감사하다.

호스피스 병동에서 환우님과 대화도 많이 나누려고 한다.
병마와 싸우며 두려움에 마음을 닫고 계실 때 환우별 취향에 맞는 대화를 찾아가
다 보면, 때로는 그 시대별 대중가요 그리고 추억의 팝송도 불러 보기도 한다.

닫혀있던 마음의 빗장이 열리고 두려움 속에 가슴 깊이 응어리로 닫혀있던 문이
열리고 그렇게 우리는 많이 가까워져 가기에 이 또한 감사하다.
그러면서 환우님의 굳어있던 얼굴이 조금씩 편안해 보일 때 우린 또 감사함을 갖
는다.

나는 존엄한 죽음(well dying)을 공부하여 웰다잉 지도강사로 강의를 하러 다녔다.
그 덕분일까? 나는 내가 죽음 준비를 참으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는데, 뜻하지
않게 나에게 찾아온 작은 시련이 있었다.

2.5cm경동맥류... 담당의사는 많이 분주하게 준비해 주셨다.
서울로 가자고 부산에서는 불안하다고... 그리하여 선생님이 서울00병원에 직접
전화하시고 서류 보내시고 3일만에 진료 받게 해 주셨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두렵지 않았다.
그렇게 진료와 검사, 수술이 빠르게 진행이 되었고 난 그 잠깐의 휴식을 취하고 성
모병원 봉사를 다시 할 수 있어서 참으로 내가 믿는 하느님께 감사하였다.
어쩌면 이러한 경험과 고통의 진행 속에서 호스피스 병동의 환우님과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는지 모르겠다.

머릿글에 “내 생각과 내 말과 행동이 언제나 당신 마음에 들게 하소서!”
라는 시편 문구는 우리집 가훈이다.
나는 내 가족과 내 모든 이웃에게 이러한 마음으로 살고 있고 내 가족 또한 이렇
게 살기를 바라고 있다.

나는 20대 초반에 장기려 박사님을 만나 이웃사랑 실천과 나눔을 그리고 겸손을
배웠고 대구 효성여대에서 마더 데레사 수녀님 품에 안기며 또한 나눔의 사랑을
배웠다.
앞으로도 감사하며 배움의 마음으로 우리 환우님들과 사랑의 마음으로 따뜻한 온
기를 나누며 살아가고 싶다.

나는 매일 기도한다.
내가 약속한 모든 분과 또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분들까지 내가 먼저 가면 하
얀 빛을 따라오시는 분들께 그 빛의 끝에 내가 꽃다발을 한아름 안겨주며 맞이하
고, 내가 뒤에 가게 되면 그 빛의 끝에서 한 송이 꽃으로 나를 맞이해 주시라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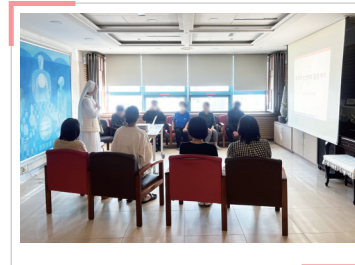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의 이모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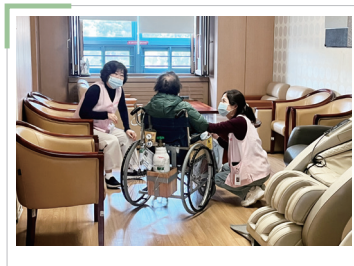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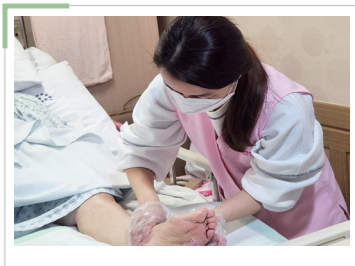
가족교육

“환자와 마음나누기”, “통증과 증상 관리”,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하기”, “돌봄의 기술 익히기”, “호스피스 환자를 위한 영양교육” 등 다양한 주제로 매주 가족 교육을 진행하며, 가족들이 환자를 이해하고 보다 편안하게 돌볼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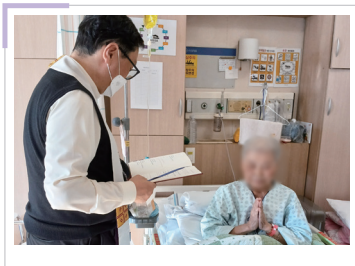
자원봉사 활동

자원봉사자들이 발 마사지, 휠체어 산책, 기도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환자 곁을 지키며 따뜻한 돌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영적 돌봄

환자와 가족들의 영적 지지를 위해 신부님과 수녀님들이 병실을 방문하여 기도, 봉성체, 병자성사 등 다양한 영적 돌봄을 제공하고 있으며, 환자가 원할 경우 대세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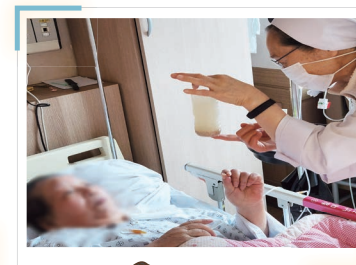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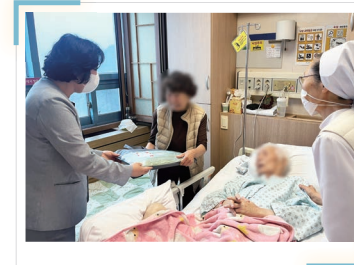
생신/축일 축하 이벤트

환자의 생신과 축일을 완화의료팀원들이 함께 축하하며 기쁨과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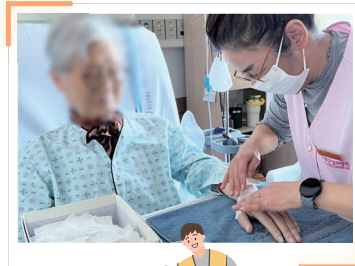
다양한 돌봄 이벤트

명절, 부활절, 정월대보름 등 여러 기념일에 맞춰 다양한 돌봄 이벤트를 진행하며, 병원 생활에서 환자와 가족들에게 작은 기쁨과 활력을 더하고자 합니다.



요법 프로그램

힐링과 심을 통해 환자와 가족들의 정서적 환기를 제공하고자 원예, 캘리그래피, 명상 등 다양한 요법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정형 호스피스



성탄 이벤트

성탄절을 맞이하여 맛있는 성탄 케익을 나눔으로 환자와 가족들이 기쁜 시간을 가지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부활 이벤트

부활절을 맞이하여 쉬폰컵빵과 구운 달걀, 캔디 등을 넣은 꼬꼬닭(종이인형)으로 환자와 가족들과 함께 하는 마음을 전해 드렸습니다.

생일 이벤트

가정형 호스피스 이용 기간 동안 생신을 맞이한 환자에게 축하 이벤트를 실시했습니다.



사별 가족 돌봄

가정형 호스피스를 이용하다가 임종하신 환자의 가족들과 함께한 사별가족 모임을 진행했으며, 사별가족을 방문하여 애도의 시간을 갖고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정형 호스피스 간호 처치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 제공 - 혈압 측정 및 영양제 주사 처치 등을 실시했습니다.



가정형 호스피스 홍보

호스피스 서비스를 운영하지 않는 병원을 방문하여 가정형 호스피스를 홍보하였습니다.



가정형 호스피스 돌봄키트 및 가정용 산소 발생기 대여

가정형 호스피스 서비스 첫 방문시 제공하는 돌봄 키트에 대한 설명을 통해 가정에서 산소발생기를 원활히 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후원회 가입안내

호스피스 후원회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아래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부산성모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 센터 사무실의 Fax, 전화, 우편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스피스 후원회원에게는 호스피스 소식지를 발송해 드리며,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의 각종 행사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부산성모병원 완화의료 후원기금 참여 신청서

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주소	
연락처	

※ 부산가톨릭의료원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금 영수증 발급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후원하시는 모든 기부자분들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개인 정보는 기부약정의 효력으로 영구 보관되며, 외부로 유출되지 않습니다.

동의 서명 : _____

금액 : 일금 _____ 원(W)

□ 일시기부 :

□ 정기기부 : 매월 _____ 원 _____ 회(년)

※ 납부안내 : □ 무통장 입금

- 예금주 :
- 은행명 :
- 계좌번호 :

□ 자동이체(CMS)의 경우 아래의 사항을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금주 : _____ - 은행명 : _____
- 계좌번호 : _____ - 동의서명 : _____

※ 부산성모병원 완화의료 후원기금은 소정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성모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에서 펼치는 말기암 환자 및 그 가족을 위한 가톨릭 의료기관의 이념 실천 사업을 지지하며 위와 같이 약정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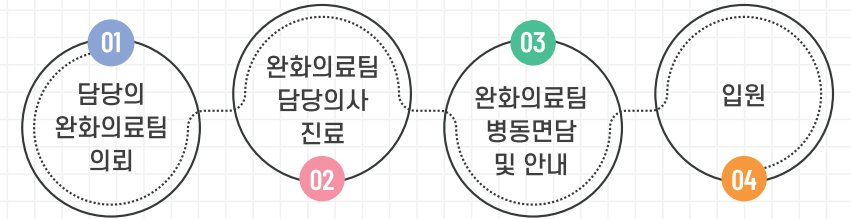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약정인 (서명)

신청서 보내주실 곳 48575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로232번길 25-14 부산성모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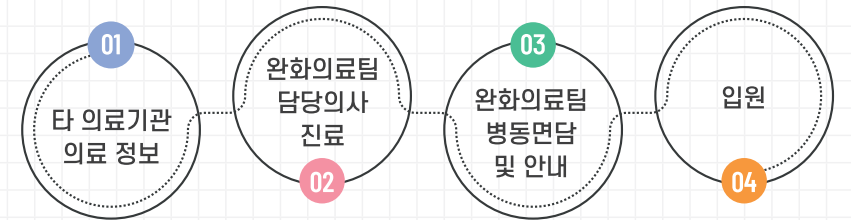
후원회 관련 문의사항 Tel 051)933-7137 Fax 051)932-8636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이용안내

본원 입원 환자



타 기관 환자



- ※ 구비서류
- ① 의사소견서 혹은 진단서(1개월 이내)
 - ② 최근 검사자료(CD 및 영상 판독지, 조직검사 결과지)
 - ③ 현재 복용 중인 약 처방전
 - ④ 의무기록사본 등

진료시간 및 진료과 안내

- 예약 진료를 원칙으로 합니다.
- 진료예약 : 051)933-7777
- 평일 : 오전 10시~오후 5시
- 토요일 : 오전 10시~오후 12시(일요일, 공휴일은 휴진)

진료상담 및 문의

- 입원형 : 051)933-7133
- 가정형 : 051)933-7969
- FAX : 051)932-8636